

대화에서 반복표현의 성립조건과 유형

노은희*

1. 들어가며

반복은 대부분의 담화 장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언어 현상이다. 이 때, 반복은 언어의 제 층위에서, 언어의 각 요소나 구조에서, 그리고 그 요소나 구조의 특정 자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반복표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양상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반복성을 띠게 된 언어적 결과이다.

이러한 반복 현상의 광범위성·복합성으로 인해 총체적인 접근이 어려웠고, 나아가 반복에 대한 인식이 언어학적 가치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간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못했던 듯하다.¹⁾ 지금까지의 언어 기술은 구어와 문어의 구별없이 언어 현상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 서울대 대학원

1) 이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복에 대한 부정적 관점 및 편견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반복은 잉여적이고 군더더기이다. ② 반복은 창조성 부족에 기인한다. ③ 반복은 선택적인 문체적 장식이다. ④ 반복은 특정 담화(시, 노래)의 요소이다. ⑤ 반복은 화제의 언급에 따른 자동적 결과이다.

로 기술되어 왔다. 보다 정확히 지적하자면, 구어보다는 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문어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데 주력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반복표현에 대한 낮은 관심도 사실 문어 중심의 언어 기술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우리가 구어와 문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동일한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며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더욱 아니다(장소원, 1995). 특히, 언어 사용의 원리를 규명하고자 할 때, 구어와 문어에 따른 표현 양상의 차이는 핵심적인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어와 대비되는, 나아가 구어에서 중심적인 언어 양상 중 하나로, 반복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반복은 대화를 비롯하여 구어담화 장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²⁾ 이러한 반복의 보편성은 어쩌면 반복이 구어담화에서는 최소한 필수적이고 주요한 기

- 2) 담화 장르에 따라 반복의 빈도와 그 유형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줄고(1997a)에서 제시한 동일 내용의 문어담화와 구어담화의 비교에서, 다음처럼 구어담화가 반복의 전체 빈도가 높으며 문어담화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구 이상의 반복도 나타남을 살필 수 있다.

반복		담화	구어담화	문어담화
전체 빈도			13	3
유형별	단어 반복		11	3
빈도	구·절 반복		2	0

그리고 Tannen(1989)이 제시한 일상 대화와 드라마 대사의 비교에서, 다음처럼 같은 대화체(dialogic mode)라도 일상 대화가 드라마 대사보다는 반복의 전체 빈도가 훨씬 높음(2배 가량)을 살필 수 있다. 그럼에도 드라마 대사는 實演적 특성상 일상 대화보다는 소리에 의한 반복(음운 반복)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반복		담화	일상 대화	드라마 대사
전체 빈도			623	320
유형별	음운 반복		48	91
빈도	단어이상 반복		575	229

이와 같이 모든 담화 장르에서 반복이 발생한다. 하지만 담화 장르 중 문어담화보다는 구어담화가, 나아가 같은 구어체라도 드라마 대사보다는 일상 대화가 반복의 전체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간략한 비교지만, 다른 담화 장르보다 일상 대화가 반복 현상이 두드러짐과 담화 장르의 특성에 따라 주요하게 나타나는 반복유형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지도 모른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반복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경도된 시각들은, 구어담화에서 반복의 다양한 기능을 단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구어담화의 실제 사용상의 특성을 간과한 탓이기도 하다. 구어담화는 즉각적인 직접 대면 속에서 운용해야 하는 장면적 특성에 따라 인지적 부담이 적고 생산이 쉬운 반복표현을 쓰기 마련이다. 나아가, 반복표현은 정확한 정보 전달과 사회적 유대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 (1) A : 나 군대 간다.
 B : (뭐,) 군대 간다고?
 (2) A : 오늘 날씨 좋지?
 B : (그래,) 날씨 좋구나.

여기서 반복표현을 통해, (1)의 B는 즉각적인 장면 속에서 자신이 들은 정보를 재차 확인하며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2)의 B는 상대방의 정서에 동감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표현들은 구어담화에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아니며, 오히려 의사소통상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인 것이다.

요컨대 구어담화에서(특히, 대화에서) 반복은 널리 사용되며, 그 양상이 문어담화와는 다르다. 이에 구어담화를 중심으로 한 반복표현의 정립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담화 차원에서의 반복표현의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으며,³⁾ 대부분 뚜렷한 규정 없이 ‘반복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3) A : 나 군대 간다.
 B : ㄱ. 군대 간다고?

3) 본격적으로 반복표현의 유형과 기능을 다룬 최초의 논문은 장석진(1981)의 글로, 반복표현의 형식적 특성과 기저구조를 살핀 후 억양에 따른 화행적 기능을 살피고 있다. 이에 대한 뚜렷한 후속 연구가 없는 채로 있다가, 어미를 통사적 차원이 아닌 화용적 차원으로 다루면서 반복표현을 유도할 수 있는 ‘-고’를 중심으로 그 양상을 살핀 짧은 논문들이 두 편 정도 나왔다. 김종현(1994)와 전해영(1996)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편의 글 모두 반복표현에 대한 전체적인 양상을 유형화하고 그 기능을 검토하였다기보다는 특정 어미 ‘-고’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복질문의 양상만을 다루는 제한성을 보인다.

ㄴ. 벌써 간다고?

ㄷ. 뭐라고?

B의 ㄱ~ㄷ은 반복표현의 개념 한정에 따라, 반복표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반복표현을 유사한 형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ㄱ·ㄴ이 포함될 수 있고, 되풀이하며 확인하는 질문의 기능을 중심으로 보자면 ㄱ·ㄷ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화에서 반복표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먼저 반복표현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보편적인 반복의 성립조건을 일차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화의 특성에 따른 반복표현의 성립조건을 이차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일차적 성립조건은 이차적 성립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의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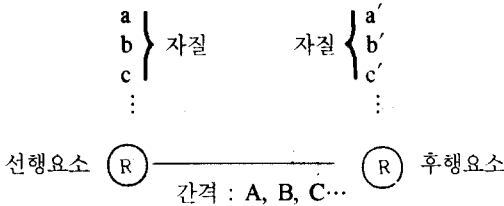
2. 대화에서 반복표현의 성립조건

2.1. 일차적 성립조건

‘반복’은 언어 제 층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요소와 (통사) 구조의 재사용을 뜻한다. 실제 언어사용에서는 요소와 구조가 서로 통합되어 복합적인 반복표현을 생산하기 마련이지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반복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소의 ‘선정’을 통해, 다른 하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배열’을 통해 반복성을 띌 수 있다. 즉, 요소의 선정에 초점을 두어 동질 요소의 재사용을 통해 반복성을 드러낼 수 있고, 배열에 초점을 두어 이질 요소라도 동일 배열을 통해 반복성을 드러낼 수 있다. 동질 요소의 동일한 배열이 반복적 양상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화에서 반복표현은 동질 요소의 선정과 동일한 배열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러한 결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반복성을 띌 수 있는 제 유형들을 검토한 후, 그 중에서 반복표현을 한정하려 한다.

먼저, 본고에서는 어휘요소의 재사용에 초점을 두어 반복유형을 살펴보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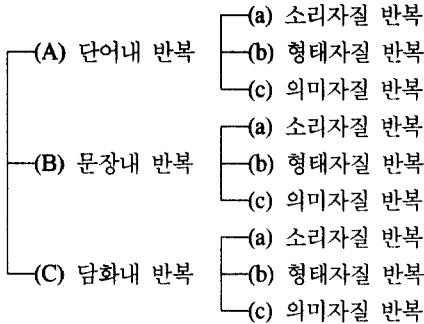
한다.4) 이를 위해 먼저 어휘요소의 재사용을 통해 성립될 수 있는 반복유형을 일차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반복은 요소와 요소가 결합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우선 반복유형은 일정간격을 두고 동일 또는 유사한 두 개 이상의 요소가 출현해야 한다. 반복요소는 선행하는 요소와 후행하는 요소로 이루어지며, 후행하는 요소는 하나 이상이어야 한다. 선행요소는 배경이나 조건이 되며, 후행요소는 여기서 선택된다. 언어사용자의 후행요소 선택이 반복의 결합방식을 결정한다. 즉, 언어사용자는 선행요소와의 연결 간격을 정하고 선행요소와의 연결 자질을 선택하여 후행요소를 형성함으로써 전체 반복유형을 완성한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반복요소는 선행요소 R과 하나 이상의 후행요소 R'로 이루어진다. 이 두 요소는 A·B·C 등의 다양한 간격을 두고 출현하며, 선행요소의 자질 a·b·c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이 선택되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행요소 a'·b'·c' 등의 자질과 연결된다. 반복유형은 선행요소와 후행요소 사이의 결합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요소간의 연결 간격과 요소간의 연결 자질이 반복의 결합방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이며 따라서 이것들이 반복유형 분류의 주요한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반복간격으로 단어·문장·담화를, 반복자질로 소리·형태·의미를 일차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5)

요컨대, 반복간격과 반복자질을 기준으로 반복유형의 체계를 세우면, 다음처럼 9가지의 반복유형(Aa~Cc)이 이론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 4) 어휘요소와 통사구조는 각기 단독으로도 반복성을 띌 수 있지만, 본고에서 요구하는 반복표현은 그 중심이 요소의 선정에 있다. 즉, 어휘요소의 일치가 구조의 일치보다는 반복성의 강도가 높게 인식된다. 이 때문에 구조의 재사용은 보통 '반복'이라는 용어보다는 '병렬구조'나 '병행구문'이라는 용어를 통해 달리 연구되어 왔다.
- 5)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줄고(1997b)에서 제시하였다.



흔히 단어내 반복유형(A)에 따른 언어적 결과를 ‘반복어’로, 문장내 반복유형(B)에 따른 언어적 결과를 ‘반복구문’으로, 담화내 반복유형(C)에 따른 언어적 결과를 ‘반복표현’으로 칭한다.⁶⁾ 즉, 이 중에서 본고의 관심 대상인 반복표현은, 담화 차원에서 두 문장(또는 그 이상) 사이의 간격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소들간의 결합을 말한다.⁷⁾

그러면 담화내 반복은 소리·형태·의미 자질에 따른 반복유형(Ca~Cc)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유형이 반복표현이 될 수 있는가?

- (4) A : 나 군대 간다.
 B : 뭐, 군대 간다고?
 (5) A : 그들이 허위보고를 했소.
 B : 뭐, 진실이 아닌 것을 말했다고?
 (6) A : 자, 따라 읽으세요. 어니스트.
 B : 어니스트.

6) 이 때, 반복어나 반복구문은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동시에 단어나 구문 같은 하나의 단위를 이루며 연결된 짝을 일컫는 데 비해, 반복표현은 선행요소를 제외한 후행요소를 주로 일컫는다. 예를 들어, 반복어 ‘말랑말랑’이나 반복문 ‘철수가 왔어요, 철수가’ 등은 공통된 반복요소가 동일한 단어와 문장 내에 존재하지만 반복표현은 본문의 예들에서처럼 대개 선행발화 A에 대한 B의 발화를 일컫는다.
 7) 단어내·문장내 반복유형은 그야말로 단어와 문장과 같은 단위내 요소들의 연결인데 비해, 담화내 반복유형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요소간의 연결, 즉 단위간의 연결을 말한다. 따라서 ‘담화내’라는 용어보다는 ‘문장간’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진한 글자는 선행요소이고, 밑줄친 글자는 후행요소이다. 곧 (4)는 앞의 ‘군대 간다’는 선행요소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 자질을 선택하여 ‘군대 간다고’라는 후행요소를 형성함으로써 반복표현을 완성하고 있다(Cb 유형). (5)는 형태 자질보다는 ‘허위보고를 하다’라는 선행요소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 자질에 기대어 후행요소와 연결하고 있다(Cc 유형). 또 이와 다르게 (6)은 ‘어니스트’라는 소리의 일치를 통해 반복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Ca 유형).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고에서는 반복표현을 형태 자질의 반복(Cb)으로 제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가장 많이 사용된다. 즉, 다른 유형에 비해 실제 언어사용의 장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다. 둘째, 전형적이다. 언어사용자가 반복표현으로 가장 잘 인식해낸다. 셋째, 기본적으로 형태적 반복은 다른 유형의 반복을 수반한다. 넷째, 결속 방식을 따른다. 담화내에서 형태의 반복은 두 문장을 서로 결속시키며 대화를 연관짓는 언어기제로 사용된다.⁸⁾ 이로써, 반복표현을 담화내 형태 자질의 반복유형으로 일차적으로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첫번째 이유는 실제적인 것이므로 설명이 크게 필요없지만, 나머지 이유들은 또다른 설명을 요한다. 우선 두 번째·세 번째 이유를 중심으로 반복표현을 담화내 형태 자질의 반복유형으로 한정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려 한다. 사실 지금까지도 형태 자질의 반복유형 연구가 주축이 되어 반복현상을 설명하여 왔다. 이것은 형태 자질은 소리와 의미 자질을 동시에 수반하여 나머지 유형과 그 기능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리나 의미 자질의 반복유형은 이에 비해 한 가지 자질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반복유형으로 인식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자.

먼저 소리 자질의 반복유형은 형태와 의미의 자질을 수반하지 않는다. 즉, 소리간의 연결로 형태층과 의미층의 실체를 이끌어 낼 수 없다. (6)에서의 반복은 소리의 따라하기로 B의 ‘어니스트’가 지시하는 의미내용은 없다. 또 소리의 일치에 의해 형태의 반복성을 유지하는 듯하나, /어니스트/는 발음상의 문제이지 형태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흔히 언어사용자들은 이를 유의미한

8) 첫째·둘째 이유를 통해 담화에서 형태 자질의 반복유형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셋째·넷째 이유로 언어사용의 하나의 원리로서 이를 규명해야 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반복표현이라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리나 형태 자질의 반복을 수반하지 않고 의미 자질 단독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가? (5)는 화맥상의 동의어를 중심으로 보면, 형태나 소리 자질의 반복이 없는 의미 자질의 반복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가 완전한 등가성을 가지고 되풀이됨을 인정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즉, 형태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일정 정도의 의미의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다. 사실 의미 자질이 형태 자질의 반복을 수반하지 않고 완전히 등가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⁹⁾

반면, 형태 자질의 반복은 (4)의 예처럼 항상 소리와 의미 자질의 반복을 수반한다. 따라서 형태 자질간의 연결은 의미와 소리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이끌게 된다. 이는 언어사용자가 형태 자질의 반복유형을 다른 유형에 비해 전형적 유형으로 널리 인식하게 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즉, 세 자질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반복유형을 형성할 수 있는 형태 자질이, 반복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마련이다. 사실 이 세 가지 자질은 완전히 독립하여 각자 쓰이기보다는 긴밀히 연결·통합되어 운용되기가 쉽다. 그런데 반복은 하나 이상의 자질간의 연결이므로 소리 또는 의미 자질만으로 반복성을 떨 수는 있지만 전형적인 반복표현으로 인식되는 데는 부족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네 번째 이유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담화 차원에서 즉, 두 문장 간의 어휘요소의 형태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사용은, 소리와 의미 자질의 동일하거나 유사함을 자연스럽게 수반한다. 따라서 두 문장간의 두 반복요소는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며 의미를 연결하기 마련이다. 이로써 어휘요소간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결속기제로 작용한다.

앞의 예에서 우선 (6)처럼 소리자질만의 반복으로 의미연쇄를 이루기 어렵다. (5)의 경우에는 의미연쇄를 이룰 수 있지만, 각 어휘요소의 기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상위의 의미관계를 통해 연결된다. 그에 비해, (4)의 경우는 공통된 어휘요소를 통해 의미연쇄를 이루고 있다.

담화는 저마다의 주제를 갖고 있으며, 그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의미연쇄를 이루는 것을 결속적 방식이라 한다. 대화에서 화

9) 의미 자질은 형태 자질의 반복의 결과물로서만 되풀이된다고 할 수 있다(Hasan, 1989).

자는 선행발화와 후행발화를 의미적으로 일관되게 연결함에 있어서 여러 결속 기제 중 화자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 중에서 반복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주체·행위의 특수성이나 구체성에 강조점을 두어 ‘의미를 명료화’할 수 있는 기제이다. 이처럼 담화내 형태 자질의 반복은 소리나 의미 자질의 반복과는 달리 분명한 결속기제로서 기능한다. 이는 담화 차원에서의 반복표현은 단순히 되풀이하는 행위가 아니라, 화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식임을 보여준다.

요컨대 대화에서의 반복표현은, 일차적으로 담화내에서 문장간의 간격을 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요소의 형태 자질을 재사용한 후행발화로 한정하고자 한다.

2.2. 이차적 성립조건

지금까지는 선행발화와 후행발화 간에 하나라도 공통된 요소를 지니면 반복표현에 포함시켰다. 즉, 본고에서 일차적으로 한정된 대로 반복이 ‘담화 차원에서 형태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요소의 재사용’이라면 선행발화와 후행발화 간에 하나라도 공통된 어휘요소를 지니면 반복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문장을 연결짓는 결속기제로의 반복 어휘요소에 대한 설명력만을 가진다.

(7) A : 철수는 왜 아직 안 왔니?

B : ㄱ. 철수는 바빠.

ㄴ. 철수는 왜 안 왔냐고?

여기서 (B_ㄱ)의 대답은 선행발화 A에 대해 ‘철수’라는 공통된 어휘요소를 통해 발화를 연결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결속적인 표현이다. (B_ㄴ)의 대답도 마찬가지로, ‘철수’, ‘왜’, ‘안 오다’ 등의 어휘요소를 통해 발화를 연결하는 결속적인 표현이다. 이 때, 우리는 이 두 대답을 모두 반복표현이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 즉, (B_ㄱ)의 대답에서 ‘철수’라는 공통된 어휘요소만으로 반복성을 띠기에는 부족하다. (B_ㄴ)은 이에 비해 선행발화와 공통된 어휘요소의 수가 많고 그 배열이 유사하기 때문에 반복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반복표현은 기본적으로 결속적이다. 반복표현은 선행발화와 결속으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어휘요소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¹⁰⁾ 거꾸로 결속적인 표현만으로 반복표현을 담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의미한 반복표현으로 인식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별개의 한정이 필요하다. 즉, 어휘요소의 일치와 함께 그 배열의 유사함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반복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발화가 “달이 커다랗게 떴다.”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후행발화의 요소와 그 배열을 생각해 보자. 우선 요소 선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

- 가. {달, 커다랗게, 떴다}
- 나. {달, 커다랗게, 떴다 + $\alpha, \beta, \gamma \dots$ }
- 다. { $\alpha, \beta, \gamma \dots$ }

(가)는 선행발화에 쓰인 요소만으로 이루어진다. (나)는 선행발화에 쓰인 요소 외에 다른 요소가 더 첨가된다. (다)는 선행발화의 어휘요소와 전혀 형태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어휘요소로 발화를 구성한 경우이다. 일차 한정에 따라 (다)에서는 반복표현이 생산될 수 없다. 즉, (다)는 이미 이질적인 요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반복표현을 구성하지 못한다.¹¹⁾

물론, (가)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표현이 가장 반복성을 띠며, 그 어휘요소의 수가 많을수록 그 배열이 일치할수록 그 정도는 높아진다고 하겠다. (나)에서도 반복표현이 생산될 수도 있지만, 새롭게 첨가된 요소와 함께 재배열하게 되면 반복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반복표현으로서 선택 가능한 후행발화를 생각해 보자.

10)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보통 문장 형식을 이루며, 이는 수행상 발화로 나타난다. 즉, 반복표현은 대개 하나 이상의 어휘소들의 결합으로 문장 형식을 갖추고 있는, 선행발화를 되풀이한 후행발화를 말한다.

11)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이질적인 요소라도 선행발화와 구조적으로 일치하면 반복성을 갖는다. 다음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노래가사인데, 구조적 반복성을 이용한 경우이다.

두근두근 울렁울렁 가슴뛰지만
무섭고도 두려워서 겁이나지만

- (8) A : 달이 커다랗게 떴어.
 B : ㄱ. 달이 커다랗게 떴다고?
 나. 달이 벌써 떴다고?

여기서 (Bㄱ)은 (가)에 의해, (B나)은 (나)에 의해 생성된 후행발화이다. 그렇다면 (B나)은 반복표현인가? 미리 결론짓자면, 본고는 (Bㄱ)만을 반복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Bㄱ)은 선행발화의 요소에서만 어휘요소를 선정·배열하여 그것만으로 하나의 발화를 이루는데 비해, (B나)는 이 외에도 새로운 요소가 첨가된 경우이다. 즉, ‘달이·뜨다’라는 기존의 요소와 ‘벌써’라는 새로운 요소가 결합하여 후행발화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양상은 사실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한데 이들을 경계지를 마땅한 근거는 없다. 선행발화에서만 후행요소를 따올 경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만일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면 반복표현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새 정보에 집중하게 되버린다. 따라서 본고에서 유의미한 반복표현은 (가)처럼 선행발화에서만 요소를 선정하여 후행발화를 구성한 것이라고 하겠다.

반복표현으로 (나)를 배제하고 (가)로 한정하는 데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가 서이다. 첫째, (가)와 (나)가 담화 장르를 통해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 유의미하다고 보는 (가)의 경우는 구어담화에만 쓰이지만 (나)는 문어담화에도 쓰인다.¹²⁾ 물론 이 두 유형 모두 구어담화에서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특히 전자의 경우는 거의 구어담화에만 사용된다. 따라서 본고가 대화에 초점이 있는 만큼 전자가 대화의 기능상 유의미하게 파악될 수 있다.

둘째, (가)와 (나)는 결속 방식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자는 어휘 기제 중에서도 반복기제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후자는 반복기제 외에도 다른 어휘항목이 첨가되어 의미-구조적 관계가 다소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어휘 기제가 보다 주요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반복기제가 문장간 결속에 절대적으로 작용하지만, 후자는 반복기제가 문장간 결속의 일부로서 작용한다.

셋째, (가)와 (나)가 재구성할 수 있는 후행발화의 수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

12) 최명식(1988)도 전자를 중첩구조, 후자를 반복구조라고 하여 따로 구분지어 논의하였다.

는 선행발화에서만 그 요소를 선정하여 재구성하기 때문에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¹³⁾ 후자의 경우는 첨가된 요소의 종류, 어순 재배열 등과 같은 이유로 해서 거의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런데 (가)에 따라 구성된 후행발화일지라도 유의미한 반복표현이 되려면 어순배열에 있어서 선행발화의 배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행발화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A : 달이 커다랗게 떴어.
 B : ㄱ. 달이 커다랗게 떴다고?
 ㄴ. 달이 떴다고, 커다랗게?
 ㄷ. 커다랗게, 달이 떴다고?

A의 선행발화의 요소로 후행발화를 재배열함에 있어서 B의 ㄱ·ㄴ·ㄷ이 가능한데, (B ㄱ)의 경우는 선행발화의 어순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고, (B ㄴ)·(B ㄷ)은 각각 오른쪽일탈문과 왼쪽일탈문을 통하여 배열을 달리한 것이다. 이때, 선행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두 반복표현일 수 있으나, (B ㄴ)·(B ㄷ)은 배열 방식이 달라진 만큼 의미-구조적으로도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B ㄱ)과 같이, 어순배열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유형을 유의미한 반복표현으로 다루고자 한다. 나머지는 반복표현으로 인식하는 데 어순 배열의 변화가 다소 장애를 준다. 즉, 어순 변화에 의해 특정 요소를 초점화하거나 강조할 수 있는데 이로써 새로운 정보가 첨가되어 선행

13) (B ㄱ) 이 외에도 선행발화의 요소를 선정하여 후행발화로 구성할 수 있는 반복표현을 상정해보자.

- ㄴ. 달이 떴다고?
 ㄷ. 커다랗게 떴다고?
 ㄹ. 달이 커다랗게?
 ㅁ. 달이?
 ㅂ. 커다랗게?
 ㅅ. 떴다고?

물론, 여기서도 조사나 어미의 변화와 억양의 차이에 따라 상당수의 다른 표현이 생산될 수 있으나, 배열을 달리하지 않은 채 어휘소 선정의 경우수만을 생각하면 7가지가 전부이다.

요소에 대한 반복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보로 이끌리기 쉽다.

따라서 일차와 이차의 한정을 통해 본고에서 설정한 반복표현은, 선행발화와 이질적인 어휘요소 없이, 형태적으로 공통된 어휘요소를 하나 이상 가지면서 그 요소(들)의 배열이 일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반복표현에서 선행요소와 후행요소는 동일 어휘항목에 속하면서 형태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성을 띠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완전한 형태적 동일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본고는 반복요소를 내용어의 어휘항목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조사나 어미 등의 기능어의 차이는 정도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예를 들어, ‘먹는다’, ‘먹으려고’, ‘먹다니’ 등은 모두 동일 어휘항목에 속하며 형태적 유사성을 지니므로 서로 반복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리고 ‘철수’, ‘철수는’, ‘철수도’ 등도 서로 반복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나아가 언어사용상의 화계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서법이나 인칭의 변형은 대화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반복표현으로 인식하는 데 크게 문제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스럽게 된다.

(10) A : 나 군대 간다.

B : ㄱ. 나 군대 간다?

ㄴ. 너 군대 간다고?

여기서 형태적 동일성으로 본다면 (B ㄱ)이 완전한 반복이지만, 이는 실제 소통상에서 A의 발화의 의미내용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A에게 반발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우이다. (B ㄴ)의 경우, 인칭과 서법의 변화가 따르는데 ‘나’가 ‘너’로 ‘간다’가 ‘간다고’로 바뀌었다. 이처럼 대화자들이 인칭이나 서법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앞선 발화를 재수용하는 것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화상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반복표현으로 인식된다.

3. 대화에서 반복표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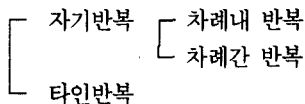
앞에서 반복의 성립조건을 토대로 하여 반복표현을 한정하였다. 이러한 반복표현은 다시 여러 기준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먼저 대화 속에서 반복표현은 우선 상황맥락 속에서 ‘두 명 이상의 대화자’가 의미연쇄가 가능한 ‘동일 담화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담화의 어휘요소’를 되풀이한 것이다. 여기서 대화에서 반복표현을 위한 유형화 기준을 세 가지 정도로 추출할 수 있다. 먼저 두 명 이상의 대화자 중 누가 반복표현을 하였는가, 의미연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여러 차례를 거친 후에 지연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담화의 구성성분 중 어느 형식적 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를 간략히 반복표현의 행위자·주기성·형식성 기준이라고 하겠다. 이 기준들이 유용한 것은 이에 따라 구분되는 유형의 기능 양상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화에서의 반복표현이 행위자·형식성·주기성에 따라 유형화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행위자에 따른 유형

반복표현은 **행위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다른 담화 장르와는 다르게 대화는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의 대화자간 의미 교섭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신이 한 발화를 반복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한 발화를 반복할 수도 있다. 즉, 크게 자기반복(self-repetition)과 타인반복(other-repetition)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기반복은 화자 자신의 발화에 대한 반복으로, 같은 차례 내에서 수행한 경우와 다음 차례에서 수행한 경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유형 구분에 따라 간단하게 예를 살펴보자.¹⁴⁾

(11) A : 발령은 내년 3월에 날 거 같아요. 작년에 적체가 되갔구요 내년에 날 거 같아요.
 <차례내 자기반복>

(12) A : 나 군대 간다.
 B : 뭐?
 A : 군대 간다고. <차례간 자기반복>

(13) A : 날씨 참 좋구나.
 B : 그래, 참 좋다. <타인반복>

반복표현의 행위자가 유형 구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에 따라 의미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1)·(12)의 경우는 자신의 발화를 다시 반복한 경우이고, (13)은 상대방의 발화를 다시 반복한 경우이다. 여기서 차례내 자기반복인 (11)의 경우는 반복을 통해 ‘내년에 날 거 같다’는 의미를 명료히 하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차례간 자기반복인 (12)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놓친 정보를 다시 반복하며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타인반복인 (13)의 경우는 의미를 분명히 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정서에 동감을 표시하며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반복과 타인반복이 상호작용 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비상호작용적인 방향으로, 후자는 상호작용적인 방향으로 반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은 인지적 부담과 전략적 측면에서 운용상의 차이를 보이며 그 기능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자기반복은 주로 의미를 명료화하여 재차 확인하는 데 쓰이며, 반복된 형식에 청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자기반복이라도 차례내·차례간 반복의 양상이 조금은 다르다. 차례내 자기반복은 차례의 중간에서 일어나므로 대화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서 특별한 정보의 도입이나 누구의 개입도 없이 진행된다. 차례간 자기반복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다시금 불충분했던 정보를 재확인시켜 준다. 타인반복은 자기반복과는 아주 다

14) 유형 구분상의 모습을 간략히 보여주기 위해 본고에서는 주로 앞뒤 발화를 연결하면서 국지적(局地的) 국면에서 작용하는 반복양상을 제시한다.

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즉, (13)처럼 상대방에 대한 강한 공감도를 신호화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3.2. 형식성에 따른 유형

반복표현은 형식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형식성의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 유형은 비교적 다양하다.

- ① 반복요소의 품사 : 명사류 반복 · 동사류 반복 · 형용사류 반복 …
- ② 반복요소의 닮은 정도 : 같은꼴 반복(완전 반복) ~
비슷한꼴 반복(변형 반복)
- ③ 반복요소의 선택 정도 : 전체 반복 ~ 부분 반복

여기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과 유형을 달리 선택할 수 있다. ①은 선행발화 중 어떤 요소를 반복시켰는가에 따라 명사류 반복, 수사류 반복, 형용사류 반복, 관형사류 반복, 부사류 반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반복요소의 품사별로 유형을 나누는 것은 어휘요소의 선택 문제를 주로 고려하게 되고 배열의 문제는 등한시하게 된다. ②에서 같은꼴 반복은 선행요소의 완전한 반복으로, 선행요소와 후행요소가 동일 문법범주 내에 있으면서 형식상 차이가 동일 문법범주 내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¹⁵⁾ 비슷한꼴 반복은 선행요소에 대한 후행요소의 변화로 의미가 첨가·강화되거나 문법범주가 달라진 경우를 말한다. 주로 조사와 어미의 첨가나 변형으로 이루어지며, 심지어 어휘요소의 품사의 전성까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반복요소간의 닮은 정도는 주로 각 어휘요소의 형태상의 변형을 중심으로 유형을 가르는 것으로 배열을 다루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어휘의 선택과 문법적 배열이 동시에 운용되는 양상을 다루는데는 ①·② 모두 미흡하다.

15) 다음 (14)·(15)의 (B)에서, 같은꼴로 ‘철수가’, 비슷한꼴로 ‘철수도’, ‘철수마저’, ‘철수까지’ 등이 가능하다. 격변화를 수반할 수 있어 문법관계가 달라질 여지가 있는 ‘철수에게’, ‘철수를’은 반복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변형은 소통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4) A : 철수가 강아지를 견어쳤어요.

B : ㄱ. 철수가? <명사류 반복 : 같은꼴 반복>

ㄴ. 견어쳤다고? <동사류 반복 : 같은꼴 반복>

ㄷ. 강아지를 견어쳤다고? <명사류 + 동사류 반복 : 같은꼴 반복>

(15) A : 철수가 강아지를 견어쳤어요.

B : ㄱ. 철수마저? <명사류 반복 : 비슷한꼴 반복>

ㄴ. 강아지까지 견어차버린다고?

<명사류 반복 + 동사류 반복 : 비슷한꼴 반복>

ㄷ. 강아리를 견어차기까지?

<명사류 반복 + 동사류 반복 : 비슷한꼴 반복>

하지만 ①·②에 따른 유형 구분은 소통상의 기능을 살피는 데는 유용하지 못하다. 이에 비해, ③은 본고에서 반복표현을 한정된 대로 어휘요소의 선택과 그 배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16) A : 철수가 강아지를 견어쳤어요.

B : ㄱ. 철수가 강아지를 견어쳤다고? <전체 반복>

ㄴ. 철수가? <부분 반복>

ㄷ. 강아지를? <부분 반복>

여기서 (Bㄱ)은 전체 반복,¹⁶⁾ (Bㄴ)·(Bㄷ)은 부분 반복이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 그 의미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B의 대답이 선행발화에 대해 상승 억양을 갖는다면, 모두 확인·놀람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유형에 따라 그 의미기능상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즉, (Bㄱ)처럼 전체 반복인 경우, 상대방의 선행발화를 다시 완전하게 반복하는 것은 전체 명제 내용에 대한 놀라움을

16) 전체 반복이라도 대부분 그리 길지 않다. 이는 반복표현 자체의 제약이라기보다는 발화수행상의 제약인 듯하다. 즉, 주로 단순문이 위주이고, 내포문·복합문 등은 잘 반복하지 않는다. 다음의 예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A : 순이가 수일이에게 자기도 그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어.

B : 뭐, 순이가 수일이에게 자기도 그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어라고?

강하게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B_ㄴ)·(B_ㄷ)처럼 부분 반복인 경우, 선행발화의 요소 중 특정 정보에 초점화하여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후속 발화의 화제 연결에도 특정 정보에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다.

3.3. 주기성에 따른 유형

반복표현은 주기성(시간적 차이)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먼저 선행요소에 대한 후행요소는 동일 담화내라도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차례가 지나간 후에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다.¹⁷⁾

- ┌ 즉각적 반복
- └ 지연적 반복

이러한 유형 구분에 따라 간단하게 예를 살펴보자.

- (17) A : 나 군대 간다.
 B : ㄱ. (뭐,) 군대 간다고? <즉각적 반복>
 :
 ㄴ. (아참,) 군대 간다고? <지연적 반복>

(B_ㄱ)의 경우 A의 진술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놀람·관심·확인 등의 의미기능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B_ㄱ)과 형식은 똑같지만 (B_ㄴ)의 경우는 다른 발화 차례들이 중간에 개입되어 시간이 지연된 후 나중에 반응을 보인 것으로 그 기능 양상은 다르다. 즉 (B_ㄱ)의 경우처럼 놀람·관심·확인 등의 기능보다는, (B_ㄴ)은 대화상의 화제가 빈곤할 때 앞선 발화 중 하나를 반복하여 ‘화제거리로 재도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반복표현은 그 주기성

17) 이상적으로 후행요소는 하나의 선행요소에 대해 담화내에서 인식가능하다면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지만, 본고에서 한정된 반복표현은 기본적으로 결속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담화내의 동일한 어휘요소의 재사용이라도 두번째 실현이 반드시 선행 발화와의 연결 속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담화 길이상 어느 정도 한정되기 마련이다.

에 따라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풀이말을 중심으로 일단의 차이를 살필 수 있다. 즉, 유사한 쓰임새의 어미들이 즉각성과 지연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고’는 즉각적 반복과 지연적 반복 모두 통용이 된다. ‘-다니’는 지연적 반복보다는 즉각적 반복에서 주로 쓰인다. 그리고 ‘-다면서’는 즉각적 반복보다는 지연적 반복에서 쓰인다. 다음 예에서, 즉각적으로 ‘군대간다면서’나 지연적으로 ‘군대간다니’는 잘 쓰이지 않는다.

- (18) A : 나 군대 간다.
 B : ㄱ. (뭐,) 군대 간다니? <즉각적 반복>
 ⋮
 ㄴ. (아참,) 군대 간다면서? <지연적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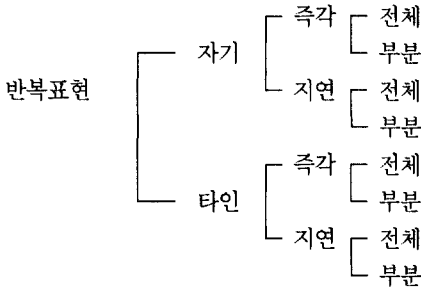
한편, 반복 중에서도 하나의 담화를 넘어서는 장기적 유형화는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서 인용 표현, 관용 표현, 상투적 표현 등은 본고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A가 ‘안녕’이라고 한 후 B도 ‘안녕’이라고 반응을 보였다고 하자. 여기서 A와 B는 처음 대면하여 의례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상황인데, 이 때 B가 A에게 반응을 보이며 ‘안녕’이라고 한 것은 반복표현인가 아닌가. 분명 앞에서의 성립조건에 따라 형태적으로 동일한 공통된 어휘요소가 쓰였기 때문에 반복표현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고에서 말하는 유의미한 반복표현은 아니라고 본다. 즉, 이러한 표현은 동일 담화내에서 단기적 유형화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의례적 발화로, 대면을 시작한 후 서로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어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화자가 의도적으로 선행발화에서 요소를 선정하여 결합하기보다는 이미 굳어져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부족한 상투적 차례교환이다.¹⁸⁾

18) 전화를 걸어 서로간에 ‘여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이는 전화를 통해 소통에 참여할 여건이 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어로 기능한다.

4. 나오며

대화에서의 반복표현은 선행발화와 이질적인 어휘요소 없이, 형태적으로 공통된 어휘요소를 하나 이상 가지면서 그 요소(들)의 배열이 일치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반복표현은 행위자, 형식성, 주기성에 따라 유형 구분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기능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세 기준으로 반복유형의 통합적 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⁹⁾



참고 문헌

김대행(1980), 『한국시의 전통 연구』, 개문사.
 김종현(1994), 「‘고’로 종결되는 질문의 유형과 그 화맥적 구조」, 『화용론 논집』 2.
 나찬연(1997), 「우리말 의미중복표현의 통어·의미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노대규(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노석기(1990), 「우리말 담화의 결속 관계 연구」, 『한글』 208.
 노은희(1997a), 「교육적 관점에서의 대화의 결속기제 고찰 : 반복 기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93.
 _____(1997b), 「반복 유형의 체계적 분류를 위하여」, 『논문집』 제63집,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19) 이러한 유형 체계를 바탕으로, 반복의 제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박정준(1994), 「담화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1996), 「현대 국어의 구어 문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주(1993), 『한국어의 의미와 문법 I; 기본적인 관점』, 삼지원.
- 이필영(1992), 「현대국어의 인용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임지룡(1983), 「의미중복에 대하여」, 『배달말』 8, 배달말 학회.
- 장석진(1981), 「국어의 반복표현」, 『말』 6집.
- _____ (1994), 『통합문법론 ; 담화와 화용』,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소원(1995), 「국어학에서의 구어성」,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 전혜영(1996), 「'-다고' 반복 질문의 화용적 기능」, 『언어』 제21권 제3호, 한국언어학회.
- 채 완(1986), 「국어의 반복 및 병렬에 있어서의 어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명식(1988), 『조선말구두어문법』, 룡녕민족출판사.
- 한 길(1993), 「월조각의 되풀이법 연구」, 『한글』 221.
- 牧野 成一(1985), 日本語口語談話における反復の原則, 言語 14(10).
- Chafe, Wallace(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umitrescu, Domnita (1996), "Rhetorical vs. nonrhetorical allo-repetition", *Journal of Pragmatics* 26.
- Halliday &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 Halliday & Hasan (1989), *Language, context, and text :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Oxford Univ. Press.
- Hasan, Riquiya (1989), *Linguistics, language, and verbal art*, Oxford Univ. Press.
- Hoey, Michael(1983), *On the Surface of Discourse*, George Allen & Unwin.
- Isikawa, Minako(1991), "Iconicity in discourse : The case of repetition", *Text* 11.
- Johnstone, Barbara(1994), *Repetition in discourse :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volume one.
- _____ (1994), *Repetition in discourse :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volume two.
- Norricks, R. Neal (1987), "Functions of repetition in conversation", *Text* 7.
- Ochs, Elinor(1979), "Planned and unplanned discourse", in Givón, T., *Syntax and Semantics 12 : Discourse and Syntax*, Academic Press.
- Planalp, Graham, Paulson (1987), "Cohesive devices in conversation",

Communication Monograph, vol. 54.

Stenström(1994), *An Introduction to Spoken Interaction*, Longman.

Tannen, Deborah(1987), "Repetition in conversation as spontaneous formulaicity",
Text 7.

_____ (1989), *Talking voices : Repetition, dialogue, and imagery in
conversational discourse*, Cambridge Univ. Press.

Tyler, Andrea(1994), "The role of repetition in perceptions of discourse coherence",
Journal of Pragmatics 21.